

□ 재난유형별 홍보문구: “건강한 겨울 나기 위한 한파 안전사고 예방”

유형	홍보내용	
한파대비 행동요령		
	<p>노약자, 영유아 등을 위해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합니다.</p>	<p>외출 시에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합니다.</p>
		
	<p>동상에 걸리면,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,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갑니다.</p>	<p>수도계량기, 보일러 배관 등은 현 옷 등으로 보온합니다.</p>
		
<p>장기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를 방지합니다.</p>	<p>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을 준비하고,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을 합니다.</p>	

※ 자료출처: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(<http://www.safekorea.go.kr/>)

한파대비 행동 요령

□ 한파는 저체온증, 동상, 동창 등의 한랭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,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. 만 아니라 농·축·수산 분야의 재산피해와 전력 급증으로 생활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. 겨울철에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합니다.

□ 상세 행동요령

- 겨울철에는 TV, 라디오, 인터넷,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며, 주변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합니다.
- 한랭질환(저체온증, 동상 등)에 대한 증상 및 조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, 가까운 병원 연락처 등을 가족·이웃과 함께 알아둡니다.
- 외출(야외활동) 시
 - 야외활동은 되도록 자제하고, 부득이 외출을 하는 경우에는 내복, 목도리, 모자, 장갑 등으로 노출 부분의 보온에 유의해야 합니다.
 - 외출 시에는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 계획을 알려둡니다.
 - 외출 후에는 손발을 씻고 과도한 음주나 무리한 일은 피하도록 합니다. 또한, 당뇨환자, 만성폐질환자 등은 미리 독감 예방접종을 하여야 합니다.
 -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, 신체허약자, 환자 등을 남겨두고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, 이웃 등에 보호를 부탁드립니다.
 - 특히, 연세 많은 어르신, 장애인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합니다.
- 응급상황 및 낙상사고 발생 시
 - 심한 한기, 기억상실, 방향감각 상실, 불분명한 발음,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때는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
 - 동상에 걸렸을 때는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되며, 따뜻한 물(약 40° C)로 세척 후에 보온을 유지한 채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.
- ※ 따뜻한 물(약 40° C)은 동상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편안하게 손을 넣어둘 수 있는 정도이며,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.
- 빙판길 낙상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폭을 줄이고, 굽이 낮고 미끄럼이 방지된 신발을 신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.

- 연석, 나무데크, 농구장 등 미끄러운 곳을 주의합니다.

○ 시설물 관리

- 수도계량기, 수도관, 보일러 배관 등은 헌 옷 등 보온재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밀폐시켜 찬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.
-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를 방지하고,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드라이로 녹입니다.
- ※ 수도관을 녹일 때 절대로 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.
- ※ 동파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 수도사업부에 전화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고,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습니다.
- 전기, 가스, 지역난방 등 시설이 고장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.
- 전기에 이상이 생긴 경우 한국전력공사(☎123)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(☎1588-7500)에 신고합니다.

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

- **보폭을 평소보다 10~20% 줄입니다.**
- **굽이 낮은 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을 신습니다.**
- **옷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,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습니다.**
- **가능한 한 손에 물건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.**
- **응달진 곳을 피하고, 급격한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.**
- **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무겁고 두꺼운 외투는 피합니다.**
- **넘어질 때는 몸을 낮게 하여 주저앉거나 옆으로 굴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.**
- **진정제, 수면제 등 어지럼 유발 약물 복용자는 외출을 삼갑니다.**